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12월


선교편지 제 159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필리핀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내가 살아왔고, 경험했고, 깊이 체득화 된 나의 문화 또는 나의 세계관과, 현지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문화와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우열의 기준으로 그들의 문화를 우등과 열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문화'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선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온 그들만의 단단한 복합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그것을 뚫고 파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굳어진 세계관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신앙 생활을 해서, 결국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른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필리핀은 평등과 불평등을 구분하는 소위 '권력거리 지수(Power Distance Index)'가 매우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불평등 하다' 라는 사실을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권력이 큰 집단이나 사람의 서열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즉, 권력이 큰 정치가나 돈이 많은 부유한 자에게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상류층이 90%의 하류층을 강력히 지배하는 현실이 전혀 이상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500여년간 지속된 필리핀의 가톨릭도 이러한 정서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 들이지만, 친밀하게 내 삶 속에까지 오셔서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시각은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 불평등은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세계관으로는 최고의 권력자(?)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강력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55:1)

또한 필리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 '시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문화의 다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화의 우열'로 판단해 버리면 결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나와 다른 현지인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매우 어렵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문화는 단기 지향적이고 정확성을 요구하고 결과가 중요한 성취 문화인 반면에, 이곳은 빠른 결과 보다는 그 언젠가 성취될 '장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서 기꺼이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단순한 시간 약속 뿐만 아니라,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나 파기 까지도 이해하는 문화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대답, 회신, 확약'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당혹스러운 '무응답'의 포괄적인 의미도 깊이 이해 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겪는 답답한 '무응답'은 '거절'의 의미가 될 수 있고, '더 기다리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모르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로 대수롭지 않게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대할 때에 내 기준으로 가르치거나 판단하면, 야속하게도 전전긍긍 하는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시간은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닌 세계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시간'와 '때'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 3:1)

필리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아마도 '재물', 즉 '돈'에 대한 세계관일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고 단순하게 이해를 했는데, 돈을 대하는 태도는 빈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문화를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로 구분할 때, 필리핀은 매우 특이하게 가족 중심의 공동체주의이면서, 개인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긴밀한 가족 관계는 공동체주의 속에 가족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족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문제와 동일하게 여기는 개인주의 이지만, 그 가족 경계를 벗어나면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는 '남'의 일 뿐입니다. 하루를 벌여 하루를 먹고 사는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가족의 생일을 맞이하면, 그 어려운 살림 중에 빛을 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일 잔치상을 차리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매정할 정도로 구경만 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간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은 나만의 것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적' 역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눅 12:42)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에 앞장 서는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언제 이 교회가 자립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 주신 사명을 힘 있게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걱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현재 동역하는 4명의 사역자를 포함하여, 10여명의 '현지 교역자'들과 긴밀하게 맡겨 주신 일을 감당 해 왔었습니다. 그들 모두 현지 신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부족한 저를 도와 맡겨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교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여명의 현지 교역자들 중에서 '십일조'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던 교역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적어서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주위의 한인 선교사들로부터 다른 교회의 현지 교역자들과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더 많은 사례비를 지출해 왔기 때문에, 꼭 그 이유만으로 십일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일조'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지만, 현지인 교역자가 이 정도 일진대, 다른 일반 교인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의 '리자' 자매는 큰 딸 '베베'가 장학 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장학생의 가정 방문과 부모 면담 등으로 교회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나머지 세 딸들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 전에 아내와 딸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고, '리자' 자매는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새벽 식사를 준비해 주는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새벽 3시부터 식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어느 때부터 인지, '리자' 자매는 물론 그 자녀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주변 환경은 동일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절망적이었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지 모르나, 새벽 일을 하는 '리자' 자매가 세 딸과 함께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수요 기도회와 찬양 연습을 하는 토요일 저녁에 교회로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도 디고스 예일교회에서는 유일하게 매주 '칠백 오십 페소 (약 \$13)' 의 십일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자신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십일조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현지 교역자들도 하기 어려운 십일조를, 연약한 과부가 청지기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리자' 자매의 간증과 가족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는 시간과 물질도 귀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리자' 자매의 감사의 고백은 교회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치었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감사절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눅 12: 43,44)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